

민간의 상상력과 道學者의 소설적 형상화

— 「金河西傳」의 경우 —

박 회 병*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河西 金麟厚(1510~1560)는 조선시대가 낳은 저명한 도학자의 한 사람이다.¹⁾ 그가 학문활동을 한 시기는 조선조 도학의 완성기라 할 16세기였다. 이 시기는 退溪 李滉, 花潭 徐敬德, 南冥 曹植, 栗谷 李珣 같은 대학자들이 배출된 시기인데, 하서는 이 분들 가운데 퇴계 및 화담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바, 퇴계와는 成均館과 湖堂에서 함께 修學하고 講論한 벗이었으며, 화담과는 辛卯 司馬試의 同榜이었다.²⁾

16세기에 위대한 도학자가 여럿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士禍로 점철된 당시의 정치현실과 땀해야 땀 수 없는 관련이 있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宦路를 떠나 鄉里에 은둔해 학문에 침잠하는 과정에서 도학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같은 도학자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개성과 취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서는 괴로운 현실을 잊거나 초월하기 위해 술에 '탐닉'하였으며, 현실에 대해 느끼는 불만과 '비분강개'를 시로 읊곤 하였다. 이 점에서

* 성균관대 교수

1) 이 글은 하서기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 「국역 하서전집(하)」(신호열 선생 역,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8)의 「年譜」 참조.

그는 다른 도학자들과 면모를 달리한다. 하서는 잘 알려진 대로 冰壺秋月 같은 인품의 소유자였지만, 술에 탐닉한 그의 행위는 도학자로서는 자못 분방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들에는 도학자들의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溫柔敦厚의 詩風과 거리가 있는,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直說한 작품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퇴계나 율곡과 달리 하서가 民間의 想像力을 바탕으로 소설의 주인공으로까지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면모가 민간에 '친근한' 느낌을 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고에서 검토할 작품은 「金河西傳」이다. 이 작품은 『雜記類抄』³⁾라는 단편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처음 소개한다.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의 하서와는 다른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읽어야 할 작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도학자인 하서가 민간에서 어떻게

3)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책의 필사본인데, 편찬자는 알 수 없다. 「孫舜孝傳」·「堯興奇應傳」·「安尙書傳」·「張順孫傳」·「皮匠傳」·「田禹治傳」·「洪相國傳」·「金河西傳」·「趙重峯傳」의 아홉 작품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조중봉전」은 傳이며, 나머지 작품은 모두 소설이다. 소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野譚의 趣向이 두드러지지만, 「안상서전」은 17세기 후반의 문인인 權愼이 창작한 소설인바, 傳奇小說에 해당한다. 「안상서전」에서 확인되듯, 그리고 그 책이름에서 감지되듯, 「잡기유초」는 편찬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들의 모음집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여기저기서 옮겨 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아홉 작품의 주인공 가운데 제일 후대의 사람이 안상서인데, 17세기 중·후반에 생존한 인물이다. 따라서 책의 편찬 시기를 17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려잡을 수는 없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대체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 사이에 편찬된 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김하서전」의 창작시기도 이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작품의 구성이나 전개 등을 고려할 때 조선전기에 창작된 것일 수는 없고, 올려잡더라도 본격적 야담이 등장하는 17세기 중·후반을 상회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4) 여기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민간'이라는 말에 대해 잠시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본고에서 쓰는 '민간'이라는 말은 '민중' 혹은 '민중세계'라는 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이 용어는 하층의 민중만이 아니라, 상층과 하층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하던 부류들도 함께 포함한다. 이런 부류는 일종의 사회적 '중간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사회에서 이런 부류가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세력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회학적' 견지에서는 별반 의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문화적'(혹은 문화적) 견지에서는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층 지배층과 하층 민중은 그 언어와 문화를 '직거래'하기도 했으나, 많은 경우 두 계급의 언어와 문화의 교섭에는 중간층의 매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 중간층은 상

층과 하층의 경계에 존재하거나 상층과 하층을 넘나들면서 상층 언어와 문화의 일부를 민중층으로 전달하거나 거꾸로 민중의 언어와 문화를 상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계층이 담당한 이런 역할은 '이야기', 특히 '인물이야기'에서 아주 잘 확인된다. 상층 사대부의 인물이야기는 사실적 성격의 逸話가 그 주류를 이루는데(물론 상층 사대부의 인물이야기가 모두 일화는 아니며, 전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사실적 성격의 일화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일화는 중간층을 통해 하층으로 下降되면서 민중의 생기발랄한 상상력이 보태져 초현실적 성격의 人物傳說로 변형된다. 하층의 인물전설은, 어떤 계기에 의해 직접 상층에 전달될 수도 있으나, 대개는 다시 이 중간층을 통해 상층에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중간층은 상하층의 매개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상하층의 언어와 문화를 뒤섞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중간층에 해당하는 부류들은 상·하층의 언어와 문화를 疏通시키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野史나 野譚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이들 중간층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후술하듯, 허황된 내용의 설화나 야담적 이야기에 더러 유식한 문자나 詩句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은 이 중간층의 존재 및 역할과 관련해 설명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중간층은 基層民衆처럼 무지렁이도 아니었고, 상층 양반처럼 많은 한문 소양과 지식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약간의 한문 소양과 지식은 갖고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의 형성(혹은 이런 이야기로의 변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중간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갔다고 보인다. 조선 전기 사회의 중간층적 부류로는 서얼, 중인서리, 殘班, 지체 낮은 鄉班 따위를 들 수 있을 터이다. 조선후기에 오면 중간층이 훨씬 다양해지는 바, 시정인, 유랑 지식인, 물락양반, 경제적·사회적으로 상승한 富農 등이 추가된다. 이 중 중인서리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閭巷人層은 급기야 하나의 사회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해갔다. 그래서 중간층 하면 일론 조선후기의 여항인을 떠올리게 되나, 꼭 여항인만이 중간층은 아니다. 여항인은 조선후기에 경제적·문예적으로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가장 대표적인 중간층으로 부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항인이 곧 중간층 '자체'(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 중간층은 여항인을 핵심적 존재로 포괄하면서도 그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항인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중인서리층을 염두에 둔 다분히 지역에 국한된 개념인바, 향촌사회까지 포함해 全國을 고려하는 필자의 중간층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민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저기에는 민중은 물론이려니와 서울과 지방, 도시와 향촌의 중간층 부류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지방과 향촌의 중간층 부류는 그간의 문학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느낌이 없지 않은데, 구비문학이나 야담의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후술되는 「죽은 김세억을 이승으로 되돌려보낸 하서선생」 같은 설화의 형성에는 16세기 향촌사회의 중간층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인다.

'민간'이라는 말은 아주 유용한 용어로서 사유를 좀더 정밀하게 가다듬으면서 그 의미를 재규정하여 생산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격적인

게 받아들여졌던가 하는 점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양반사대부 사회에서 하서가 훌륭한 학자로 인정받아 온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민간에서 하서가 어떻게 관념되었던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민간의 상상력에 의거해 창작된 「김하서전」은 이 점에 대해 알게 해준다.

민간의 상상력이 집약되어 있는 장르는 설화이다. 「김하서전」은 바로 이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하지만 설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김하서전」은 '事實 여부'를 중요시하는 인물전설과 달리, 이야기의 '興味'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김하서전」은 단순한 '인물전설'이 아닌 '야담적 이야기'가 소설로 정착된 경우라 할 것이다.

2. 김인후에 관한 인물전설

「김하서전」에 대한 검토에 앞서 김인후에 관한 인물전설을 간단히 살펴둘 필요가 있다.

김인후와 관련된 인물전설 가운데 특히 유명한 것은 「죽은 김세억을 이승으로 되돌려보낸 하서선생」이다. 이 설화는 아마도 김인후의 歿後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민간에 널리 회자되다가 급기야 사대부 사회에까지 전파되어 기록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의 최초의 기록은, 象村 申欽(1523~1597)의 문집인 『象村集』 중에 들어 있는 「山中獨言」에서 발견된다. 1560년에 하서가 歿했으니, 하서가 棄世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 기록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중독언」의 관련 기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이 죽은 후 몇 년 지나서 그 이웃인 세억이라는 자가 병으로 죽었다. 어느날 다시 살아나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숨이 끊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 잡혀가듯 하여 어떤 큰 관청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이 굉장히 크고 아전과 나졸이 가득했다. 나는 공손히 걸어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대략 착안점만을 제시해 둔다.

어갔는데, 대청에 한 재상이 앉아 있더구나. 그 분은 나를 보더니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을 부르며, '올해는 네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 왔구나. 나는 네 이웃에 살던 김아무개다'라고 말하고는 종이 에다가 글을 써 주었는데 그 글은 이랬다.

"이름은 세억이요, 자는 대년인데,

구름 헤치고 天上에 와 紫微仙을 찾았네.

훗날 77세 되면 또다시 만나리니,

세상에 돌아가 이 말 함부로 전하지 말라."

세억이라는 자는 한자를 몰랐지만, 능히 이 글을 세상에 전했다. 세억은 과연 77세가 되어 죽었다고 한다.(公歿數年, 公之隣人名世億者, 病死。一日, 絕而復甦。因語其子曰: "氣絕之時, 有若爲人所押, 詣一大衙門, 館宇深邃, 吏卒駢闐, 世億趨前進。堂上, 坐一宰相, 見世億, 詢其來由, 呼而言曰: '今年, 非爾限也。爾誤來爾。我即爾之隣人金謀也。' 書一紙以授曰: '世億其名字大年, 排雲遙叫紫微仙。七旬七後重相見。歸去人間莫浪傳。' 世億者, 不解文字而能傳之。世億果七十七而死云。)"

이 설화에서 한시는 이야기의 전개와 긴밀히 맞물리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⁶⁾ 즉 이 시는 김세억이 77살에 죽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암시대로 김세억이 77살에 죽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설화는 민간세계가 도학자인 하서를 어떻게 관념하고 있었던가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하서에 대한 尊崇의 태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하서가 죽어 紫微宮의 신선이 되어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現世에 그리 높은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死後 天上의 세계에서는 재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서가 무척 훌륭하고 덕이 높은 인물임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하서에 대한 '親近感'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김세억은 한자를 몰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반 백성이거나 적어도 일반 백성과 별 다른없는 처지의 인물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그는 하서의 생전에 그 이웃에 살

5) 『상촌집』, 권49.

6) 주 4)에서 이 설화의 형성에 16세기 향촌사회의 중간층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하서의 이웃집에 살았다는 김세억이 등장하는 것이라든가 한시가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호 연결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있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자가 죽은 후 하서를 만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설정 방식에서부터 이미 하서에 대한 親近感이 전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서는 김세억을 보자마자 그가 자신의 이웃에 살던 자임을 대뜸 알아보고 “나는 네 이웃인 김아무개지(我卽爾之隣人金某也)”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억의 字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역시 친근감을 갖고 하서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서의 인물전설에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면모는 소설 「김하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⁷⁾

김인후의 인물전설 가운데 유명한 또 다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공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자 마침내 밭에 병이 생겼다 핑계하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다. 明宗이 校理로 불러 부임길에 올랐는데 도중에 두어 섬 술을 싣고 가다가 주막에 대나무와 꽃이 있으면 문득 말에서 내려 술을 마셨다. 그러니 10여일 동안 간 거리가 고작 3·4일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마침내 술이 다 떨어지자 병을 핑계하고 가지 않았다.(公棄官歸, 遂稱蹇遊, 不出戶庭, 明廟以校理徵之, 應召登途, 於行路載數石酒, 村店有竹有花, 輒下馬引酌, 十餘日所行, 纔數日程, 及酒盡, 稱疾不行.⁸⁾)

朴東亮의 『寄齋雜記』에 실린 이야기다.⁹⁾ 이 설화는 「죽은 김세억을 이승으로 되돌려보낸 하서선생」처럼 허황된 것이지 않고,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⁰⁾ 이 설화는 亂世의 현실을 대하는 하서의 자세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설화에 그려진 하서의 모습은 근엄하기만 하거나 법도에 얽매인 형상이 아니다. 호방하며 풍류를 아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도학자의 일반적인 像과는 분명 다른 면모이다.

우리가 살핀 두 설화는 민간에서 하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특징적으

7) 「산중독언」의 기록은 『연려실기술』 제9권 「仁宗朝 故事本末」의 「김인후」條에 轉載되어 있다. 이 설화는 또 대동소이한 형태로 「西崖雜錄」과 조선후기의 야담집인 「記聞叢話」에 실려 있다.

8) 『연려실기술』 제9권 「仁宗朝 故事本末」의 「金麟厚」條.

9) 『연려실기술』 제9권 「仁宗朝 故事本末」에서 재인용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 野史·雜錄類에 실려 있다.

10) 김하서는 44세 때인 명종 8년(1553)에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어 부름에 응해 길을 떠나 가다가 중도에서 羹을 올려 병으로 사퇴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국역 하서전집(하)』의 연보 참조). 이 설화는 실제 있었던 이 일에 근거하고 있다.

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설화들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실제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민간 세계가 하서를 어떻게 관념했던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3. 「김하서전」의 내용

「김하서전」은 다음과 같이 서두를 열고 있다.

김하서 선생이 少時에 전라도에서 上京하는 길이었는데, 때는 6월이었다. 산아래에 이르자 뒤에서 말을 타고 오던 어떤 여인이 공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그 여자가 쓴 너울을 날려 버렸다. 그 여자는 쫓아가 너울을 잡고자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공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芳年에다 몹시 아리따와 세상에 둘도 없는 美色이었다. 그 여자는 잠시 후 너울을 다시 쓰고 떠났다. 공은 大欲이 쫓아 일어났다. 그러나 곧 마음 속으로 “士族의 여자에게 이런 惡念을 품어선 안되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欲情之心이 사그라졌는가 하면 다시 타올라 종시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여자는 몇 리 안 가서 산모퉁이를 향해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것이었다.(河西金先生, 少時自南中上京, 時六月, 行到山下, 有一女行, 從後馳來, 掠過之際, 一陣旋風¹¹⁾猝起, 捲去羅兀, 趁捉¹²⁾羅兀未易, 公見其婦人顏面, 稚年絕艷, 世間無比, 俄而改着羅兀而去, 公大欲隨生¹³⁾, 旋即語心曰: “於士族女, 何敢萌此惡念?” 然欲情¹⁴⁾之心, 隨望隨熾, 終不自抑, 尾而隨之, 行未數里, 向入山隅, 見有一座瓦屋.)

상당히 찢긴한 장면묘사다. 특히 김하서의 내면적 갈등에 대한 묘사는 썩 빼어나다. 道心, 즉 이성적 판단에 따라 욕망을 억누르고자 하는 도학자로서의 김하서와 人心, 즉 자연스런 인간적 욕구를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김하서가 서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고전문학사에

11) 원문에는 ‘風’자가 빠졌는데, 있어야 뜻이 통하므로 보충했다.

12) 원문에는 ‘捉’이 ‘捉’으로 필사되어 있으나 誤寫이므로 바로잡았다.

13) 원문에는 ‘生’이 ‘往’으로 필사되어 있는데, 문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 誤寫일 것으로 보아 ‘生’으로 고쳤다.

14) 원문에는 ‘情’이 ‘棟’으로 필사되어 있으나 誤寫이므로 바로잡았다.

서 도학자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은 띄 드물거니와, 하물며 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은 장르 여하를 막론하고 찾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도학자의 '不動心'을 보여주는 설화로 靜庵 趙光祖가 자신의 방에 뛰어들어 이웃집 처녀를 준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趙靜庵 설화에 그려진 조정암의 모습과 소설 「김하서전」에 그려진 김하서의 면모는 띄 대조적이다. 조정암 설화에서 이웃집 처녀는 조정암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들어 죽고 마는바, 설화는 조정암의 비극적 최후가 이 처녀의 怨念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¹⁵⁾

하지만 소설 「김하서전」은 후술하듯 김하서가 단지 도학자로서의 근엄함만이 아니라 인간적 면모를 지녔기에 복을 받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조정암 설화의 의미지향과 정반대라 할 것이다.

회오리 바람에 여인이 쓴 너울이 벗겨짐으로써 사건이 시작되는 「김하서전」의 설정은 얼핏 李銜이 창작한 傳奇小說인 「沈生傳」의 서두를 연상케 한다. 「심생전」 역시 회오리 바람에 여인이 쓴 보가 걸힘으로써 그 미모가 확인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생전」의 주인공인 심생은 「김하서전」의 김하서와 달리 여인을 처음 본 순간 심리적 갈등 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는다. 심생은 김하서처럼 도학자이지 않고 “風情騷蕩”¹⁶⁾한 청년이었기에 그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김하서전」의 주인공은 내적 갈등을 겪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 여인을 뒤쫓아간 주인공의 그 다음 행동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인의 집은 상당한 규모를 갖춘 班家였다. 김하서는 行客이라면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지만, 그 집 하인은 과부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래서 간청 끝에 겨우 留宿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김하서는 담을 넘어 여인이 있는 內房으로 몰래 다가가 창틈으로 그 동정을 훑쳐보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여인은 어떤 젊은 중과 한창 서로 회롱 중이었다.

15) 조정암 설화의 各篇 가운데에는 결말을 다르게 맺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정암의 꾸짖음을 받은 처녀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16) “沈生者…容貌甚俊詔, 風情騷蕩”(「沈生傳」, 『沈庭巖集』).

이 광경을 보고 의분을 느낀 김하서는 중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단검을 갖고 들어가 그 등을 찔러 죽였다. 여인은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김하서는 여인더러 너는 士族의 여자거늘 어찌 중과 짜고 남편을 죽인 후 이런 淫行을 일삼느냐고 꾸짖었다. 여인은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무얼 숨기겠느냐며 지초지중을 말한다. 여인의 입을 빌려 서술되는 이 부분은 敘事時間의 逆轉에 해당한다. 여인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제 남편은 年少才子로서 여러 번 鄉試에 합격했지요. 지난 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절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중을 보내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했어요. 큰 비가 3일 밤낮을 쏟아부어 집앞의 시냇물이 불어나 4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써 건널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동안 이 중은 행랑방에 묵고 있었지요. 여름 비가 내리는 밤이라 그 습습함을 견디지 못해 저는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잤는데, 이 중이 밤에 몰래 들어왔어요. 저는 깊이 잠든 탓에 그만 몸을 더럽히고 말았지요. 그때 죽지 못한 것은 죽을 죄였지요. 그러나 남편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니고 중이에요.(妾之夫婿, 年少才子, 累中發解. 上年夏, 與友人上寺做工之時, 下送此僧, 要取糧饋. 僧才下來, 大雨連注三晝夜, 前溪水漲, 四日而後, 始得過涉. 其間此僧棲¹⁷⁾在行廊, 夏雨之夜, 蒸鬱難耐, 開窓而睡, 此僧中夜潛入, 熟睡中身被污辱, 只缺一死, 死罪矣. 至於殺夫, 則非我也, 僧也.)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여인의 이 말은 거짓이다. 나중에 드러내지만 이 여인은 뒤에 또 한 차례 거짓말을 해서 烈女門을 하사받기까지 한다. 얼굴은 아리답지만 마음은 간사한 여인이었던 것이다.

김하서는 여인을 꾸짖은 후 그 방을 나왔다. 그리고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여인의 남편이 나타나, 자기 처와 중이 결탁하여 자신을 살해한 후 집뒤의 대나무숲에 암매장하고는 사람들에게 범한테 물려갔다는 말을 퍼뜨렸음을 밝힌다. 그래서 늘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군자를 만나지 못해 복수를 못하다가 이제야 군자를 만났다고 말한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여인의 너울을 날아가게 만든 것, 그리하여 김하서에게 여인의 얼굴을 보게 해 그 姿色에 이끌려 따라오게 만든 것도 다 자기가 한 짓이라고 밝힌다. 이 대목에 이르러, 너울이 바람에 벗겨진 것이 소설 구성상 하나의 伏線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복선은 별다른 예술적 기교 없이 다분히 說話調로 서술되는 듯하던 「김하서전」이 의외로 구성상의 책략을 깔고 있는

17) 원문에는 '棲'자가 '接'자로 필사되어 있으나 謾寫이므로 바로잡았다.

며, 풀룻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남편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는 김하서가 자신의 복수를 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았다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七夕 節日製¹⁸⁾가 있을 것인데 시험 문제는 '七夕'이라는 제목으로 賦를 지으라는 것인바 “金風颯而夕起, 玉宇廓其崢嶸”이라는 구절로 첫머리를 삼는다면 반드시 장원을 할 것이며 殿試에 直赴¹⁹⁾하여 급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김하서가 상경했더니 나라에서 과연 七夕製를 보이는데, 七夕이라는 제목으로 賦를 짓는 것이 시험 문제였다. 하서는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 작품은, 당시 知館事로서 시험 보이는 자리에 참석했던 慕齋 金安國이 보였던 반응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적고 있다.

慕齋는 공이 지은 첫 구절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이건 귀신의 말이다!”

라 하였다. 그 아래 구절을 듣자,

“이건 문장가의 솜씨다.”

라고 했으며, 1편을 다 읽자 다시 말하기를,

“첫 구절 외에는 모두 한 사람이 지은 글이다.”

라 하였다.(聞公初頭, 大驚曰: “此必鬼語也!” 及聞下句, 曰: “此則文章之人手段也.” 讀盡一篇, 又曰: “初頭外, 皆一人作也.”)

실제 김인후는 19세 때인 1528년에 「칠석부」를 지은 바 있다.²⁰⁾ 당시 容齋 李荇이 文衡으로 있었는데, 칠석날을 당하여 '七夕'을 題로 하여 성균관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이 해에 처음 상경한 김인후는 응시하여 장원이 되었으며, 그의 「칠석부」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²¹⁾ 용재는 이 賦가 워낙 빼어나 혹 남의 손을 빌려 지은 것이 아닌

18) 칠월 칠석의 명절을 기념해 선비들에게 보이던 시험을 일컫는 말인데, 줄여서 七夕製라고도 한다.

19) 節日製에 합격한 사람에게 文科의 覆試나 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20) 『국역 하서전집』의 「연보」 참조.

21) 『於于野譚』에 하서의 「칠석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至今爲東人傳誦”이 그것이다(만종재본, 권1, 23면).

또 洪翰周는 『智水拈筆』(서벽외사 해외수일본 13, 아세아문화사, 1984)에서, 조선

가 의심하여 하서를 성균관에 있게 하고 일곱 가지 글제를 내어 시험을 했는데 하서는 모두 그 자리에서 지어 썬을 바쳤을 뿐 아니라, 그 詞致도 아울러 뛰어나니 용재는 경탄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중 「鹽賦」는 「칠석부」와 함께 문집에 실려 있다.²²⁾

문집에 전하는 「칠석부」의 冒頭는 “秋風颯以夕起, 玉宇廓其崢嶸”으로서, 「김하서전」의 서술과 별 차이가 없다.²³⁾ “玉宇”란 가을하늘을 일컫는 말이다. 이 詩句는 참으로 그 意境이 범상치 않을 뿐더러, 氣像이 清爽하고 格調가 高邁하다.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이 구절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귀신의 말이라는 이야기가 전파되었던 듯하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있다. 『智水拈筆』의 다음 기록이 그것이다.

錢起는 여관에서 잘 때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의 詩句를 얻어들었고, 河西는 科擧 보러 가는 길에 어떤 행인을 만나 “秋風颯而夕起, 玉宇廓而崢嶸”의 賦를 얻어들었다. 錢起와 河西는 모두 이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였다.²⁴⁾

錢起는 唐나라 시인인데, 그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의 鬼語를 얻어 과거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詩話인바, 洪萬宗이 撰한 『小華詩評』에도 실려 있다. 『소화시평』은 이와 함께 鄭知常이 山寺에서 공부하다 귀신에게서 詩句를 얻어 장원급제한 故事를 소개하고 있다.²⁵⁾ 이 밖에도 꿈에서 어떤 사람에게 시구를 얻어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는 野史나 古談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처럼 중세사회에는 선비가 귀신에게서 시의 驚句를 얻었다든가, 그 경구로써 과거에 급제했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이다.

후기에 科詩로 유명했던 石北 申光洙와 漢源 盧訥에 대해 거론하면서 하서의 「칠석부」도 언급하고 있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河西七夕賦, 亦科作, 而實有漢唐詞賦體, 至入東文選”(위의 책, 168면).

이들 기록을 통해 하서의 「칠석부」가 하서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科詩로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칠석부」는 『국역 하서전집(상)』의 맨 첫머리에, 「염부」는 75면에 실려 있다.

23) 「김하서전」에서는 “金風”, 문집에서는 “秋風”이라 한 차이가 있으나, 기실 그 뜻은 같다.

24) 『智水拈筆』, 264면.

25) 『홍만중전집(하)』(태학사, 1980), 33면.

「김하서전」은 「칠석부」와 관련해 전해지던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작품의 한 중요한 모티프로 삼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김하서전」에서 김하서가 「칠석부」를 지어 장원을 하고 그 덕에 이듬해 直赴及第한 것으로 서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지수염필」에서 김인후가 「칠석부」로 급제했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실제 사실이 어땠는가 하면, 김인후는 22세 때인 1531년에 성균 사마시에 합격했으며, 이로부터 9년 뒤인 31세 때에 비로소 別試文科 丙科 제4명에 합격했다. 19세 때 「칠석부」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 꼭 12년만에 문과급제를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안국이 어찌고 한 것 역시 실제 사실이 아니다. 김안국은 훗날 김인후가 별시문과에 응시했을 때 讀券官이었다.²⁶⁾ 김안국은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였을 때 어린 김인후에게 「소학」을 가르쳤던바, 두 사람은 師弟의 緣을 맺고 있었다. 어찌면 두 사람의 이 밀접한 관계가 「김하서전」의 착각을 초래했을 수 있다.

하지만 「김하서전」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착각이 있다고 하여 「김하서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작품에 서술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경우 하등 중요하지 않다. 「김하서전」은 傳記小說이 아니며, 민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립된 일종의 野譚小說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의 상상력이 실제 사실을 어떻게 변형하면서 김인후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하서전」은 김하서가 귀신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설화였다면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났을 터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계속된다. 만일 「김하서전」이 주인공 김하서가 급제하는 데서 끝났다면 그 구성과 플롯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하서전」은 다시 ‘가짜열녀담’을 보탬으로써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김하서전」은 그럴 餘地를 미리서부터 은밀히 마련해 놓았다 할 수 있다. 김하서로 하여금 증은 懲治케 하면서도 여인은 그대로 둔 채 떠나게 한 데서 그런 餘地를 읽을 수 있다.

26) 「국역 하서전집(하)」, 719면 참조.

「김하서전」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가짜열녀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하서가 과거에 급제한 후 榮親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이전의 그 과부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웬 烈女門이 서 있었다. 근처에 투숙하여 까닭을 물어보니, 야밤에 과부를 겁탈코자 侵房한 중을 과부가 칼로 찔러 죽인 후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나라에서 그 節行을 표창하여 旌門한 것이라 하였다. 이튿날 김하서가 고을 수령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니, 수령은 하서의 '高義'를 칭송하였다. 竹林을 파헤치니 과연 屍身이 나왔는데, 얼굴빛은 살아 있는 듯했고, 목 졸린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과부를 잡아와 다그치니 그 죄를 실토하였다. 마침내 열녀문을 헐어 버리고, 綱常罪를 범한 과부를 義禁府로 압송했다. 이 날 밤, 죽은 선비가 다시 김하서에게 現夢하여 원수를 갚아준 것과 자신을 厚葬해 준 데 감사하면서 결초보은 하겠노라고 했다.

이런 종류의 가짜열녀담은 전연 새로운 것은 아니며, 야담에서 이따금 발견된다. 『於于野譚』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

서울에 사는 어떤 武士의 농장이 密城에 있었다. 그는 星州·尙州를 왕래할 때 늘 친한 儒生의 집에 들러 자고가곤 하였다. 그러나 4, 5년 사이 서울의 일이 바빠 왕래할 겨를이 없었다. 萬曆 10년(1582), 다시 밀성에 가게 되어 행로에 그 친구집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죽은 지 3년이였다. 날이 저물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었으므로 행장을 풀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며 하인에게 분부해 객실을 소제하고 모시게 하였다. 무사는 옛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객실의 북쪽 담은 매우 높고 뜰에는 대나무가 무성하여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달빛이 희미했다. 그때 대나무 사이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사는 범이나 샴쌍이가 아닌가 싶어 몸을 숨긴 채 주시하였는데, 웬 중이 대나무 숲을 헤쳐나오며 두리번거리더니, 이윽고 몸을 숙구쳐 곧장 규방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무사는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다. 규방 창문에는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무사가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안을 들여다 보니, 농염하게 단장한 젊은 여인이 숯불이 이글거리는 청동 화로에 고기를 굽고 술을 데워 중에게 권하고 있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난 중은 등불 아래서 마음껏 여인을 희롱하였다. 무사는 분을 참지 못해 화살을 뽑아 활에 먹여 창문 구멍으로 들이쏘았다. 중은 외마디 비명울 지르고는 쓰러져 죽었다. 무사는 활을 감추고 잠자리로 가 일부러 드르렁 코고는 시늉을 하였다. 조금 있으니 안에서 부인이 다급하게 중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온 집안의 중들이 이웃을 부르며 떠들어 대었다. 무사가 놀란 척하며 일어나 그 연유를 물었더니,

“주인집은 士族으로서, 마님이 과부가 되어 수절 중인데, 밤에 미친 증놈이 안방으로 뛰어들므로 마님이 칼을 빼 그 증을 죽이고 몸을 갈기갈기 찢은 후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자살하려는 것을 집안 사람들이 구출했읍지요.”

라 하였다. 무사는 失笑를 참고 탄식하면서 그 집을 떠났다. 이듬해에 다시 그 마을을 지날 적에는 이미 節婦 旌門이 서 있었다.²⁷⁾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 상황설정이 「김하서전」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김하서전」은 이런 설화에다 하서와 관련된 설화를 접맥함으로써 구성과 플롯을 좀더 복잡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어우야담』에 실린 설화에서는 여인이 懲治됨이 없이 종결됨으로써 풍자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데 반해, 「김하서전」에서는 여인이 종내 징치됨으로써 사필귀정이 강조된다. 「김하서전」의 이런 귀결은 도학군자로서의 김인후의 평판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작중 인물 ‘김하서’가 아무리 허구화된 존재라고는 하나 실제인물인 ‘김인후’에 따라다니는 이미지와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점은 앞서 귀신이 김하서보고 이제야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君子”를 만났다고 한 말에서도 확인되지만, 풍속과 綱紀의 扶正者처럼 그려진 결미부의 김하서 형상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김하서전」은 끝부분에 작자가 직접 등장하여 실제인물 ‘김인후’와 소설적 주인공 ‘김하서’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김인후가 華貫을 역임하고 그 명성이 한 시대에 높았던 것, 그리고 그의 棄世 후 사람들이 書院을 건립하여 千秋에 제사를 받든 것은 실로 그의 도덕과 문장, 충의 때문이지만, 남의 원수를 갚아줌으로써 음덕을 쌓은 일 역시 얼마간 작용했으리라는 발언이 곧 그것이다. 작자는 민간적 상상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김하서전」 주인공의 형상이 실제인물 김인후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작품 맨끝에 굳이 다음과 같은 論斷을 첨부하고 있다.

士族의 여인을 보고 惡心을 일으킴은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거늘, 하물며 선생과 같이 학식과 의리를 지닌 분이 일으키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을 일으킬 리가 있겠는가. 실로 이는 하늘이 그 마음을 유혹하여 그 손을 빌려 악인을 없애고 冤魂의 억울함을 풀고자 해서일 것

27) 만종재본 『어우야담』, 권1, 36면.

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見士族女, 萌動惡心, 卽人之稍有知識者, 亦必不爲, 況以先生之學識行義, 敢生必不生之心者? 實是天誘其衷, 假手而除凶, 且雪冤魂之憤鬱也. 不如是, 豈有如此萬萬無謂之事乎?)

이는 필요없는 말이다. 「김하서전」의 「김하서」는 민간의 상상력에 따라 허구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하서」가 실제인물 김인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를 모델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하서」가 곧 실제인물인 김인후는 아니다. 요컨대 「김하서」는 민간의 상상력에 의해 허구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인바, 「김하서」와 실제의 김인후를 혼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김하서전」의 구성

앞절에서 「김하서전」의 특징적 내용을 검토했으니, 여기서는 그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김하서전」은 김하서가 과거길에서 겪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김하서는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한다. 그는 불의한 증을 懲治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리고 그 선비의 報恩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여기까지는 「報恩譚」의 일반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은담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이야기에 따라 꽤 다양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그 기본구조가 '주인공의 문제해결 → 주인공에게 도움을 받은 자의 보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개 일치하는 것 같다. 「김하서전」 역시 이런 보은담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만일 「김하서전」이 단순한 보은담이라면 주인공이 과거급제하는 데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그 구조상 완결적이다.

그러나 「김하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김하서전」이 이 대목에서 종결될 수 없음은, 앞서 지적했듯, 중과 사통한 淫婦가 그 자리에서 어떤 懲治를 받지 않는 데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작자는 다음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음부를 잠시 방치해 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김하서전」은 '단순한' 보은담과는 구별된다.

보은담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짜열녀담'이다. 여기서 작품은 淫婦가 官으로부터 烈女門을 하사받는다든 기막힌 사태의 서술을 통해 좀더 심각한 메시지를 담게 된다. 작품에서 淫婦는 士大夫家의 여자로 설정되어 있다. 조선조 사회가 여성에게 烈을 강요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런 풍조 때문에 열녀문의 하사는 가문의 대단한 영광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열녀를 낳조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 일은 물론 주로 士大夫家에서 일어났다. 「김하서전」에서 음부가 열녀문을 하사받는다든 내용은 이런 사회역사적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김하서전」은 전반부의 보은담과 후반부의 가짜열녀담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후반부의 가짜열녀담도 전반부의 보은담과 연관된 측면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품 전체를 '발전된' 보은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사실 설화나 야담 중에는, 비록 그 구체적·세부적 내용에 있어서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 모티프에 있어서는 「김하서전」의 앞부분과 유사한 작품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김하서전」의 뒷부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거꾸로 「김하서전」의 뒷부분과 유사한 설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설화가 「김하서전」의 앞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하서전」을 「김하서전」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 설화나 야담과 구별짓는 주요한 변별점의 하나는 바로 보은담과 가짜열녀담의 절묘한 결합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하서전」은 이 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결과 유사한 설화나 야담에 비해 生과 사회를 반영하는 敘事的 篇幅을 좀더 확장할 수 있었으며, 단순구성을 탈피해 좀더 발전된 구성과 플롯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김하서전」의 구성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詩句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詩가 중요한 기능을 함은 설화인 「죽은 김세억을 이승으로 되돌려보낸 하서선생」도 마찬가지인데, 두 이야기는 모두 하서의 출중한 詩才를 말하고자 한 일면이 없지 않다. 「김하서전」에서 鬼語라고 한 시구는 표면적으로 본다면야 귀신이 報恩으로 준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주인공인 하서가 鬼語라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시구를 지은 유래를 설화적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김하서전」의 구성상의 특성을 지적했지만, 「김하서전」의 특성을 그 구성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김하서전」은 대부분의 野譚小說처럼 문장의 필치가 유려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도학자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묘사는 썩 빼어난 것으로서, 이 작품이 거둔 성과를 거론할 때 이 점을 빠뜨려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²⁸⁾

5. 「김하서전」과 다른 도학자 이야기의 비교

16세기는 道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도학자로는 퇴계, 율곡, 화담, 남명을 들 수 있다. 고유한 학문적 입장과 개성을 지닌 이 분들은 이야기 속에서도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퇴계나 율곡을 주인공으로 한 설화에서는 女色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도학자로서 워낙 근엄한 몸가짐을 가졌기에 민간의 상상력으로도 이들을 女色과 관련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화담의 경우 황진이와의 유명한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여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도학자로서 화담의 不動心の 경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지, 여색에 침혹되거나 여색에 일시 미혹됨을 그린 것

28) 「김하서전」과 비슷한 내용을 갖는 야담이 「記聞叢話」에 실려 있다. 그러나 「기문총화」의 이야기에 「김하서전」에서 핵심적인 의의를 갖는다 할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이 전연 묘사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기문총화」의 이야기는 「김하서전」이 거둔 문학적 성과와 견주기 어렵다. 「김하서전」과 「기문총화」의 해당부분을 원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하서전」: “河西金先生, 少時自南中上京. 時維六月. 行到山下. 有一女行. 從後馳來. 掠過之際. 一陣旋風猝起. 捲去羅兀. 趁捉羅兀未易. 公見其婦人頰面. 稚年絕艷. 世間無比. 俄而改着羅兀而去. 公大欲隨生. 旋即語心曰: ‘於士族女. 何敢萌此惡念?’ 然欲倩之心. 隨空隨織. 終不自抑. 尾而隨之. 行未數里. 向入山隅. 見有一壘瓦屋…”

○「기문총화」: “金河西麟厚, 少時自南中上京. 路見一女. 從後來. 風捲羅兀. 見有姿色. 隨去一村…”

은 아니다. 이 이야기 외에 화담을 주인공으로 한 설화들은 대부분 화담의 도통한 면모나 신통력을 말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런 면모는 퇴계나 율곡의 설화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화담 설화가 화담이 지닌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은 화담이 頓悟를 중시한 氣哲學者였다는 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남명의 설화에는 여색과 관련된 것이 더러 발견된다. 『어우야담』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

남명 조식과 聽松 成守琛이 일찍이 벗이 되었다. 둘은 弱冠의 나이에 花柳界에 드나들었다. 어떤 미인과 자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침 사사로운 일이 생겨 모임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남명은, “丈夫가 여자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면서 굳이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曹生은 훗날 반드시 大人이 될 것이다”라 하였다.²⁹⁾

남명 설화에 여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은 남명의 기상이 호탕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³⁰⁾ 남명의 그런 면모가 민간의 상상력을 촉발하면서 여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야기의 형태로 본다면, 퇴계 및 율곡의 이야기는 주로 인물전설에 해당하며, 화담의 경우 인물전설뿐만 아니라 소설도 존재한다. 소설이란 「서화담전」³¹⁾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른바 新作 舊小說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화담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남명의 경우, 간단한 인물전설과 흥미 위주로 윤색된 야담이 함께 존재한다. 남명을 주인공으로 한 야담들 중 男女事와 관련된 한 이야기는 「김하서전」과 유사한 話素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김하서전」과 비교해 봄직한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의 것, 즉 남명을 주인공으로 한 야담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9) 만종재본 『어우야담』, 권1, 35면.

30) 남명, 특히 소년시절의 남명이 호탕했음은 野譚이나 雜記에서 종종 언급된다. 일례로 『東稗洛誦』(서벽외사 해외수일본 26, 아세아문화사, 1990), 343면에는 “南溟[冥]少時, 豪氣不羈”라는 기록이 보인다.

31) 光東書局에서 1926년에 간행되었는데,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영인한 「구할자본 고소설전집」(우레제 편, 1984) 제21권에 실려 있다.

남명을 주인공으로 한 야담은 『東稗洛誦』에 실린 것이 元祖가 아닐까 생각된다.³²⁾ 편의상 이 작품의 제목을 「남명의 淫婦懲治」라 부르기로 하자.³³⁾ 「남명의 음부징치」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명이 少時에 호탕하여 駿馬와 寶劍과 美姬, 이 셋을 얻고자 했는데, 준마와 보검은 얻었으나 美姬는 얻지 못했다. 遠近을 周行하던 중 강원도 산골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대단한 미인이어서 남명은 넋을 잃은 채 쳐다보았다. 그 여인은 靑色을 보고 싶으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남명을 자기 집 後園으로 데리고가 저기 樓閣 위에 한 미인이 나타날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과연 조금 있으니 色態가 天然한 한 미인이 나타났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그때 홀연 쉼 없이 담장을 넘어 오더니 누각의 미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마시며 온갖 淫戲를 일삼는 것이었다. 남명은 두 사람이 잠든 후 그 방에 돌입하여 칼로 둘의 목을 베어 버렸다. 이 때 빨래터에서 만난 그 여종이 울면서 들어와 잘린 머리를 소반에 담아 靈机에 놓더니 뺨을 하였다. 그리고는 남명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 百拜感謝하며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종의 주인은 京華士族인데 과거공부를 하는 사이 부인이 우연히 중과 눈이 맞아서 함께 음모를 꾸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죽였으며, 노복들 가운데 음모에 가담치 않은 자들도 모두 죽였다는 것이었다. 자기는 늘 하늘에 주인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빌어 왔는데 오늘 다행히 그 뜻을 이루었다고 했다. 남명은 이 말을 듣자, 美色에 유혹되어 하마터면 평생을 그르칠 뻔했다면서 자책하였다. 이에 준마를 놓아주고 칼을 분질러 버린 후 독서하여 大儒가 되어 세상의 존경을 받았다.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 「남명의 음부징치」는 「김하서전」과 닮은 점이 많다. 남편·바람난 부인·중, 이 세 사람의 관계설정이라든가, 중과 사악한 부인을 꺾은 선비가 징치하는 것, 사악한 부인의 미모에 일시나마 주인공이 미혹되는 것, 주인공이 훗날 도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것 등이 모두 똑같다. 요컨대, 두 작품은 다음의 점에서 동일한 전개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1) 젊은 선비가 미색에 이끌림

32) 서벽의사 해외수일본 『동패낙송』, 343-44면에 실려 있다. 이하의 논의는 이 자료에 의거한다. 『동패낙송』의 이야기는 『靑野談藪』, 『華軒麗睡錄』 등에 轉載되어 있다.

33) 원래 『동패낙송』의 이야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南漢[冥]因求美姬殺淫女」 정도가 되겠으나 너무 길어 불편하므로 편의상 「남명의 음부징치」라 부르기로 한다.

- (2) 음행을 일삼고 남편을 죽인 부인과 중을 선비가 정치함
 (3) 선비는 이후 도학자로 명성을 얻음

그러나 두 이야기에겐 공통된 점만이 아니라 상이한 점도 많다. 이를테면 「김하서전」에서는 귀신의 조화로 주인공이 여인의 집에 오게 되는 데 반해, 「남명의 음부정치」에서는 여종이 주인공을 여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와 관련되지만 「김하서전」에서는 귀신(=죽은 남편)의 존재가 작품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남명의 음부정치」에서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김하서전」에서 '보은' 모티프가 대단히 중요한 반면, 「남명의 음부정치」에서 보은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보은 모티프의 유무 여부는 귀신의 등장 여부와 맞물리면서 작품의 審美效果의 상이를 낳고 있다. 즉 「김하서전」의 경우 초현실적 환상이 극도의 신비감을 자아낸다면, 「남명의 음부정치」는 경험적 사실의 미적·교훈적 수용이라는 효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하서전」은, 앞서 지적했듯 보은담이 가짜열녀담과 결합되면서 이야기가 확장되고 새로운 사회적 의미가 추가되는 데 반해, 「남명의 음부정치」의 경우 가짜열녀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귀신의 등장 여부, 보은 모티프 및 가짜열녀 모티프의 존재 여부가 두 작품의 심미효과, 구성, 의미에 결정적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두 작품에서 주인공이 모두 일시적이거나 미색에 혹했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바를 따져 보는 일 역시 간요하다. 두 주인공은 미색에 혹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반응은 사뭇 다르다. 「김하서전」의 경우 이미 지적한 대로 주인공은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것은 道心과 人心의 싸움이다. 이와 달리 「남명의 음부정치」에서 주인공은 아무런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작품에서 남명은 작심하고 미회를 찾아 나선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주인공은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직면케 되고, 의분을 일으켜 중과 음부를 정치하게 된다. 사건이 종결된 다음 두 주인공은 자신이 일시나마 미색에 혹했던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작품에서 이 점은 아주 다르게 처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작품의 의미향에도 큰 차이가 생기고 있다. 우선 「김하서전」에서는 '군자'인 김하

서가 미색에 유혹된 것은 귀신이 解冤을 위해 조화를 부렸기 때문이라 서술해 놓고 있다. 이는 귀신 스스로의 말이다. 하지만 「김하서전」의 작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던지 자신이 직접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여 주인공 김하서가 미색을 보고 欲念을 發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복수를 위해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귀신의 말이든 작자의 주장이든 김하서가 일시나마 미색에 욕념이 動한 사태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가령 귀신의 말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귀신의 조화에 넘어가 욕념을 발한 주체는 주인공 자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명의 음부징치」는 어떠한가? 이 작품은 「김하서전」과 달리 아주 명쾌한 처리를 해 놓고 있다. 주인공 남명은 미색에 혹했던 것이 잘못임을 대오각성하고 이후 학문에 힘써 큰 유학자가 된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인공이 미색에 혹했던 것을 어떻게 귀결짓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한 「김하서전」보다 「남명의 음부징치」가 더 나은 것일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두 작품에서 이야기의 초점과 관심은 각기 다른 데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지향 역시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김하서전」의 경우 귀신의 보답으로 주인공이 장원을 한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남명의 음부징치」는 남명이 미색에 미혹된 것의 잘못을 깨닫는 데에 의미의 중심이 두어져 있다. 다시 말해 「김하서전」은 미색에 미혹됨의 잘못을 문제삼거나 거기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하필 도학자들 가운데서도 하서와 남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민간적 상상력의 속성 내지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민간의 상상력은, 도학자로 이름이 높은 인물도 일시 인간적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리, 곧 도덕과 의리를 지켜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간의 상상력은 도학자들 가운데서도 方正하고 謹嚴하기만 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인물보다는 호탕한 면이나 풍류

스러운 면도 있으며 기이한 면모 같은 것도 있어 인간적 친근감을 주는 인물에 더 흥미를 느껴,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공상의 나래를 펴 영동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서와 남명은 민간적 상상력에 내재하는 이러한 속성 내지 경향에 다른 도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울린다고 여겨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게 아닐까.

지금까지 「김하서전」과 「남명의 음부정치」를 비교해 보았다. 두 작품은 도학자와 여색의 문제라는 미묘한 사안을 건드리거나 주인공이 음부를 정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양상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장르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 「김하서전」은 소설이지만, 「남명의 음부정치」는 단순한 인물전설보다는 묘사나 서술에 있어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소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대체로 '설화를 윤색한 야담' 정도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6. 맺음말

「김하서전」에서 우리는 김인후에 대한 민간세계의 어떠한 태도와 관념을 읽을 수 있는가? 이 점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김하서전」에서 김인후는 근엄하기만 한 도학자나 궁색한 시골 선비가 아니라, 인간적 감정과 체취를 지닌 인물로 관념되고 있다.

둘째, 불의와 악을 참지 못하는 의롭고 강개한 인물로 관념되고 있다. 惡僧을 몸소 징치하거나 열녀로 행세하는 淫婦를 처벌케 하는 데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이 두 가지 점은 하서와 관련된 설화를 살펴면서 확인한 바 있는 두 가지 사실과 상통한다. 즉 설화가 보여주는 하서에 대한 친근감과 尊崇의 눈이 소설인 「김하서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말하자면 하서를 보는 태도에 관한 한 소설과 설화는 그 장르적 차이를 넘어 정신적 동질성을 보여

준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설화와 소설이 공히 하서에 대한 민간의 일반적 인식을 그 기저로 삼은 데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김하서전」은 한문소설이기는 하나 구전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립된 소설이기에 그 정신적 기저를 설화와 공유할 수 있었다.

「김하서전」은 비록 그 예술적 성취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의 상상력에 의거해 도학자를 소설로 형상화했다는 점은 小說史上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